

용문사 은행나무

강 욱

자유기고가

경기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楊平)은 서울특별시와는 불과 40km 떨어진 가까운 거리다. 서쪽은 남양주시와 광주군, 북쪽은 가평군, 남쪽은 여주군과 닿아 있고 동쪽은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양평군은 “용문에 의지하고” 있는 곳이다. 용문이란 곧 용문산(龍門山)을 가리키는데, 양평군의 북쪽 경계선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이 산은 높이가 1,157 미터로서 경기도 안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다.

이 산은 조선시대의 어느 이름 없는 시인의 시귀대로 “큰 뱀 뿌리가 하늘을 꿰뚫어 동이를 얹은 것”같이 섰고, 그 지맥은 군 안을 엇갈려 누비고 다니면서 높이가 오백 미터가 넘는 산들을 곳곳에 흩어 놓았다. 양평군 전체 땅 878km² 쯤에서 임야가 75%가 넘는 것도 이 용문산의 영향이 크다.

또한 양평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Y자로 갈라진 그 사이에 자리한 강의 고을이다. 북한강을 따라가면 가평, 춘천, 화천으로 이어지고 남한강을 따라가면 여주, 충주, 단양으로 이어진다. 이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강으로 합쳐지는 수많은 지류를 통해 내륙 깊숙이 까지 오갈 수 있었으니 한강은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같았다. 그리고 강변에는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나 휴게소 역할을 한 나루터가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양근 나루였다.

용문산은 골이 깊으며 숲이 짙어 들어차 있어 ‘경기 제2의 소금강’으로 일컬어진다. 특히 동-서로 나란히 양쪽으로 난 두 계곡 곧 새가 날개를 등 위로 뻗어 올린 모습을 하고 있는 골짜기라 하여 이름이 조계로 붙은 골짜기와 아래로 내리쬔린 맷시가 꼭 용과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이 용계로 붙은 골짜기, 예전에는 그 높이가 열자가 넘었다는 중원 폭포, 함께 대왕이 태어났다

는 전설이 내려오는 사나사 터 밑의 함왕성지 등이 유명하다.

용문산에서 나는 것으로 예부터 이름이 알려져 온 것은 산나물이다. 용문산 산나물은 여느 산나물과는 달리 삶은 뒤에 다시 찬물에 담가 우려먹지 않고 곧바로 먹어도 될 만큼 맛이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용문산 기슭 마을의 여자들은 고사리, 고비, 취나물, 참나물, 더덕 같은 산나물을 뜯거나 캐서 파는 일에 한철 품을 들인다.

이 용문산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뱀이었다. 특히 용문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여기저기에 ‘뱀탕집’ 간판이 많이 보였었다. 용문산에서 자라는 뱀이 이름난 것은 이 산에 약초가 많고 계곡의 물도 철분이 많아 그 약효가 뛰어나다고 선전되었기 때문이다. 한때는 이 뱀을 먹으려고 피어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용문산을 찾는 전체 유람객 수요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요즈음에 이런 집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렵게 되었다. 곧 양평군에서 국민관광지로 개발된 이곳을 ‘혐오식품 금지지역’으로 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문산 밑의 여러 뱀탕집들이 간판을 떼내어야 했다.

이 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잡은 용문사(龍門寺)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용문사 은행나무, 보물 제531호인 정지국사 부도탑, 용문산 전투전적비와 함께 국민관광지로 개발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넓은 주차장에서 절까지는 약 1km 거리로, 20여 분을 걸어서 올라가면 계곡을 따라 50년에서 100년 된 소나무와 잣나무,

목련나무, 동백나무, 단풍나무 등 무려 30여 종에 이르는 갖가지 수목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기암괴석 사이로는 맑은 물이 넘쳐흐르고 백년 장수한다는 약수도 솟아나 사시사철 찾는 이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용문사도 다른 절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창건 설화가 전해온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신라 신덕왕 2년(913)에 대경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고, 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직접 창사 하였다는 설도 있다. 고려 우왕 4년(1378)에 지천대사가 개경 경천사에 있던 대장경을 옮겨와 이곳에 봉안하였고, 세종 29년(1447)에는 수양대군이 모후 소헌왕후 심씨를 위해 보전을 다시 짓기도 하였다.

불교를 적극 보호하던 세조의 왕명으로 이 절을 다시 짓게 해 용문사는 한 때 300여 칸의 건물에 300명이 넘는 중들이 모여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역사의 부침과 함께 소실되고 중수되기를 거듭하다 한국 전쟁 때 불타 버린 것을 그 후에 다시 중건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용문사 입구의 은행나무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용문사가 수없이 불에 타고 쓰러질 때도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본 장본인이다. 특히 1907년에 정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용문사가 의병의 본거지라 하여 사찰을 온통 불질렀지만 이 은행나무만은 무사했다. 그래서 천왕목이라고도 불렀고 조선 세종 때에는 정3품 이상의 벼슬인 당상직첩을 하사 받기도 한 명목(名木)이다. 이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1100년으

로 추정되며 높이가 60m이고 둘레가 어른 팔로 일곱 아름이 넘는 14m나 된다. 해마다 은행을 열 다섯 가마나 댗고 있는 이 나무는 유실수로는 동양에서 가장 크고도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천연기념물 30호로 지정되었다.

이렇듯 천년 이상을 그 자리에 남아 역사의 흐름을 지켜본 용문사 은행나무는 그 나이테만큼이나 많은 설화를 간직하고 있다. 통일 신라가 망했을 때에 금강산을 찾아가던 마의태자가 용문사에 들러 심은 나무라고도 하고 신라의 의상대사가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뿌리를 내려 자란 나무라고도 한다.

또 나무꾼 하나가 이 나무를 베려고 톱을 갖다 대니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면서 나무에서 피가 흘렀다는 전설도 있고, 구한말에 고종이 죽었을 때에는 큰 가지 하나가 부러져나갔다는니, 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무가 소리

쳐 울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도 있다. 일제 때에는 일본군이 은행나무를 자르려고 한 도끼 자국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양평은 전원 풍경이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한강의 도도한 물줄기가 양안에 수려한 경관을 거느리며 흐른다. 중앙선 전철화와 4차선 도로의 확장으로 서울은 불과 40분대로 오갈 수 있다. 용문산 산채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 진상품이다. 원덕리 상추는 농약을 쓰지 않은 농산물로 서울 가락동 시장의 값을 좌우할 만큼 양질의 상추로 이름이 있다.

개군면 한우고기는 고기가 연하고 적당한 기름기로 고기 등급 최상급을 받아 특산물로 명성이 높다. 서종면의 카페촌도 각광을 받고 있는 명소다. 북한강의 맑은 물을 끼고 문호리에서 수입리까지 한강변으로 먹자거리, 카페촌 등 위락시설이 조성되어 주말에 서울 사람들이 즐겨 찾는 나들이 코스다. 